

중국의 서부대개발과 신공간혁신클러스터 전략

A Study on the Cluster Strategies of New Regional Innovation and West Great Development in China

김미정(Mie-Jung Kim)

Professor, ShanDong Youth College, China

목 차

I. 서 론	V. 결 론
II. 산업군집이론 및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참고문헌
III. 중국의 경제 및 서부대개발 현황	부 록
IV. 신공간전략 방향 및 한국의 참여 전략	Abstrac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cquire competitiveness faced with a global business so that Korea and China make them put ICT into practice through industrial policy of regional innovation clustering.

In the Chapter 2, overall review of industrial spaces theory and the environment in Global-business is conducted. In the Chapter 3, current main economic issue and West Great Development of China are viewed. Chapter 4 proposes models and strategies for the target of regional innovation clustering and phasing in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that both country should do more long-term cooperation and collecting intensive knowledge for the property of region and preparatory research of regional innovation clustering than do reckless investment.

Key Words : West great development, Regional innovation clustering strategy, ICT, e-Business culture,

I. 서론

기술이 경제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피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디지털 혁신은 경제개발에 전례 없는 기회와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e-비즈니스의 보다 강화된 역할과 ICT를 이용한 산업군집의 형성은 국가의 개념을 떠나서 지구적으로 가능하며, 그 중요성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현재 중국의 경제적 이슈에 대한 분석과 ICT를 기반으로 하는 e-비즈니스 부문에 대한 환경적 특성을 분석하고 한국이 접목할 수 있는 여지를 모색해 보는 일은 무한경쟁시대의 한중 동반자적 발전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의 최근 10년 동안 10%에 달하는 경제성장은 인접국인 한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미 한국은 교역관계에 있어 중국이 최대교역국이 되었다. 중국 역시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과 e-비즈니스 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현재 세계의 허브국가로 다시 태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ICT는 물론, 물류, 인적자원, 서비스 등에 있어서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중국 또한 현재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의 고도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e-비즈니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인프라스트라처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양국 정부의 긴밀하고도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단계이다. e-비즈니스에 있어서 생산성은 그 국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기 때문에 ICT를 이용한 신공간혁신클러스터 모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ICT 발전에 따른 글로벌화 시대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하여 신공간혁신클러스터 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비즈니스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지도를 필요로 한다. 특히 디지털의 기술 발달로 ICT의 발전은 지구중심의 클러스터 형태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자연적 또는 의도적으로 조성되는데 이에 여러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글로벌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현재 ICT 발전과 응용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산업군집의 이론개관과 e-비즈니스의 환경, 한국과 중국의 경제이슈 및 서부대개발 정책을 개관하고 e-비즈니스 환경에서의 한중의 산업클러스터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ICT를 응용한 신공간혁신클러스터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일은 무한경쟁시대의 한중 동반자적 발전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e-비즈니스의 관점에서 그 차이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글로벌 시대를 열어가는 양국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에 기여함은 물론 올바른 산업클러스터의 발전 방안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양국의 공동체 형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II. 산업군집이론 및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1. 산업군집 이론 개관 및 발전방향

1) 산업군집 이론 개관

산업군집이론의 등장배경은 유럽지역의 산업지구에 대한 경험연구에서 지각되어 1990년대 초 M. Porter의 클러스터 개념을 통해 경제학, 정책학 등으로 확대되었고, 실리콘밸리 등 세계적인 지역산업군집의 성장성 확인을 통해 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1994년 초 삭소니언(A, Saxenian)이 실리콘 밸리의 발전을 보스턴 지역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문화와 제도, 그리고 지원 체계 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산업군집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기 시작하였다.

1996년 OECD가 국가혁신체제의 주요 주제의 하나로 혁신 클러스터를 다루기 시작함으로써 선진국 내에 관련연구와 정책적 관심이 획기적으로 증대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개념이 등장하여 산업군집이 지역에 뿌리내린 집단 학습의 혁신 협력을 위해 군집내 기업들의 상호협력적 혁신능력으로 연결됨을 보여 주었다.

즉, 집적의 이익과 산업지구의 발달에 대한 입지이론적 연구, 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클러스터 이론, 그리고 지역에 기반을 둔 상호적 기술혁신체계에 관한 이론 등의 학술적 노력이 제3 이탈리아, 실리콘 밸리 등 대표적인 산업군집지역의 성장과 범세계적인 군집의 확대현상과 맞물리면서 산업군집에 대한 보다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이에 기저를 둔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강화하게 되었다.

라젠다이크(Lagendijk, 1997)는 산업군집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크게 아래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장단점과 전체적인 발전 경로에 대해 소개하였다.

(1) 신산업공간이론(new industrial spaces theory)

1980년대 초반 경제성장의 공간적 불균형을 설명하려는 경제지리학의 논거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스코트(Scott)와 스토퍼(Storper)는 각 산업은 해당 산업의 기술 및 공간요구에 따라 그에 적합한 공간환경을 형성시켜 나간다고 주장하였으며,¹⁾ 이들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규제학파(regulationist)의 해석에 고무받아, 생산체계의 특성에 따라 각 사업의 입지수요가 달라진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 과

1) A, Lagendijk, "From new industrial spaces to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d beyond : how and from whom should industrial geography learn?", EUNIT Discussion Paper 10, Newcastle upon Tyne : CURDS,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p.5, 1997.

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가 바로 기업간 거래비용임을 강조하였다.

거래비용에 기초하여 생산체계의 특성과 경제공간의 구조를 연결시킨 이들의 노력은 생산비용에만 치중하였던 신고전입지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지리학과 경제학과의 접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신산업공간이론은 경제활동의 집중과 분산을 생산체계에만 결부시킴에 따라 공간의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공간적 불균형이 산업발전의 논리적 필연적 결과임을 밝힌 반면, 성장지역 내에서도 왜 특정 지역에만 특정부문의 산업이 군집하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스토퍼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적 접근에서 벗어나 문화, 제도, 사회적 관습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하게 되었다.

(2) 구역이론(district theory)

신산업공간이론이 사회발전에 있어 경제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한 막시스트적 전통에서 출발하였다면, 구역이론은 그와 반대로 막스 베버류를 기반으로 하였다. 즉 경제발전이 개인간 의사소통(inter-personal communications)의 결과로 이해되어 이들을 신산업공간을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생산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문화적 패턴의 결과로 인식하며, 상기한 신산업공간이론에서 다소 소홀하였던 개별 기관의 역할과 사회·공간적 맥락(social-spatial context)을 중시한다.

구역이론의 이론적 모태는 첫째, 노동분업의 사회학적 해석을 의미하는 그라노베타(Granovetter)의 사회관계론으로 독립적인 개체들이 분업과 신뢰를 기반으로 ‘느슨한 연계’(weak ties)를 유지함으로써 서로 다른 개체의 핵심역량을 공유함과 동시에 고도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관계를 상정하며, 둘째,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산업지구 성장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려 했던 피오레와 사벨(Piore and Sabel, 1984)의 ‘유연적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 논의로 대량생산중심의 산업사회가 유연적 전문화를 축으로 하는 탈 산업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공동체에 기반을 두는 경제운영논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구역이론은 경제발전에 있어 소지역(지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지화논제’(localization thesis)를 활성화시켰다는 측면에서 군집지역의 이해에 기여도가 크며, 최근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²⁾에 이르기까지 경제발전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다양한 개념들의 원류가 되었으나 동시에 지구상의 모든 군집지역을 유연적 전문화와 현지화로 일원화하려는 경향을 지녔다는 한계가 있다.

2) 콜만(Coleman)에 의하면 사회자본 또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에 내재한 자본”으로 관찰가능한 물질적 형태로 체화되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도구, 기계, 생산설비 등의 물질적 자본, 개인안에 체화된 기술이나 지식 등의 인적자본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후쿠야마는 이를 “사회전체 또는 사회의 일부분에 신뢰가 널리 퍼져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음.

(3) 혁신환경(milieux innovateur) 이론

혁신환경이론은 몇몇 특정 지역들이 경험한 성공적인 경쟁력 획득을 사회적·문화적 측면과 함께 혁신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유럽내 첨단산업지구의 혁신 메카니즘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된 연구집단 GREMI (Groupe de Recherche European sur les Milieux Innovateurs) 연구자들에 의해 주창된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학습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혁신환경을 지닌 지구(구역)들의 주된 성공요인으로 집단학습과정(collective learning process)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정보의 수집과 공유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의 절감능력 등을 지목하였다. 이러한 능력은 동질적인 역사적 배경이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과 유관기관’들을 혁신 네트워크(innovation network) 내로 포섭할 수 있을 때 배양됨을 강조하였다.³⁾

혁신환경은 일정한 지리적 영역(territory)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기술거래, 기업간 사회적 관계, 그리고 시장관계 등을 배경으로 시너지 효과와 집단적 학습과정을 통해 혁신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장이 된다. 또한 혁신 네트워크는 혁신환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혁신환경 내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저이며, 협력에 기초한 기업간의 연관관계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혁신이론은 지구이론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 예컨대 공간관계의 사회적 뿌리내림(social embedding of spatial relationships)에 있어 개별 기관의 역할이나 세계경제 구도 하에서 지역의 위상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행위자(agent)와 구조(structure)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milieu”라는 개념 속에 포괄시켜버림으로써, 행위의 인과관계 구조가 혼돈되는 순환논리의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4) 클러스터 이론(clustering)

클러스터 이론은 공간군집 현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경제학자와 정책가는 물론 일반대중에게까지 확대 시킨데 그 기여가 있는 이론으로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diamond model)은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준거로 인용되고 있다.

이의 핵심은 ‘변화에 대한 인센티브’에 있으며, 특정한 지역들이 여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보이는 근본원인을 ‘변화’에 대한 동인, 즉 ‘혁신’으로 보고 혁신을 위한 경제적 환경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혁신환경이론과 클러스터 이론은 공히 혁신을 강조하였으나, 전자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후자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이론이 경쟁이론, 산업조직론, 경제발전론 등 광범위한 이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개념들을 차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기술발전이나 생산의 사회적 뿌리내림, 네트

3) GREMI의 대표적인 학자인 까마그니(Camagni)는 혁신 네트워크의 강점은 “암묵적 행동양식(tacit code of conducts), 복잡한 메시지의 해독력, 그리고 공공연히 유포되고 광범위하게 공유된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한 신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워크 관계 등의 원천과 본질을 이해하는데 제대로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후 더링거와 터클라(Deoringer and Terkla, 1995), 엔라이트(Enright, 1994) 등에 의해 보완되었는 바 전자는 클러스터링의 이론적 기반에 경쟁 외 협력과 대기업 중심의 공급체인을 추가하였고, 후자는 클러스터링의 유형을 대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5)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론

1980년대 후반 혁신의 본질과 원천,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는데, 프리만(Freeman)과 룬트발(Lundvall) 등에 의해 체계화된 ‘국가혁신체계’(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개념이 그 결과이며, 이것은 사회과학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국가혁신체계 개념의 핵심적 아이디어는 “혁신능력의 차이는 국가마다 다른 교육제도에 뿌리내린 학습 궤적(learning trajectories)의 차이”에 기인한다.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논의의 중심논제는 그것이 국가혁신체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인지 아니면 국가혁신체계의 하위개념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문제이다. 이 개념에 관한 몇몇 선구적인 학자들에 의하면, 지역혁신체계는 혁신의 과정과 핵심요인에 있어 국가혁신체계와는 다소 다른 시각을 띠고 있다. 즉, 혁신과정에 있어 ‘지역’이라는 공간적 단위가 갖는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것을 혁신창출과 확산과정에 관한 새로운 이론들과의 접목을 의미한다. 지역혁신체계에 관한 이론은 아직 형성 중이며,⁴⁾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학습지역(learning region) 등도 있지만,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적정한 지역 환경에 뿌리내린 기업의 학습속도가 더 빠르고 경쟁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현실들이 적시되고 있다.⁵⁾

최근의 이론 검토에서 오이나스와 말레키는 공간혁신체계라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를 쓰면서 지역혁신체계를 이루는 핵심적인 차원 6가지를 정리하였다(Oinas and Malecki, 1999, p.21)

첫째, 다양한 형태의 지역네트워크로 여기에는 부품, R&D 공급자 등의 경성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계, 신뢰 등과 같은 연성적 관계도 포괄한다.

둘째, 집단적 학습과 이를 위한 지역문화의 형성

셋째, 기술혁신이 사회관계속에 뿌리내리는 소위 착근성의 개념으로 무엇보다도 경제주체간의 신뢰와 공감대 강조

넷째, 제도적 환경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존재하고(institutional thickness) 그들이 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환경을 조성

다섯째, 기업가정신, 실패에 대한 관용, 신기술, 진진, 협력 등에 관한 인식 등과 같은 사회적 관습의

4) Asheim and Cooke(1999)의 편저인 *Regional Innovation Systems*, Malecki and Oinas(1999)의 편저인 *Making Connections : Technological learning and regional economic change*, and *Regional Studies*의 1999년도 6월 특집호 참고.
 5) 마스켈과 말름버그(Maskell and Malmberg, 1999)는 지식창출이 더 중요해진 현대경제에서 군집의 경향이 더 강화된다는 것을 미국내의 새로운 군집지역의 성장과 북부국가의 군집지역의 형성을 들어 확인. 즉, 기존의 군집경향이 강화되는 메커니즘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먼저, 특정부문에서 신생기업을 설립할 잠재적 기업가들은 기존의 군집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기 마련이며, 둘째로 특정지역의 어떤 산업에 기업들이 군집하게 되면 그 지역은 해당분야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입지요건(specific location requirements)을 보다 충실히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정착

여섯째, 외부관계로 지역 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혁신에의 가능성을 찾음으로써, 혁신의 경로 의존성(path-dependency)을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2) 산업군집 이론의 발전방향 및 구조분석방법

(1) 산업군집에 대한 이론의 발전방향 및 구조분석방법

1990년대 중반이후 산업의 지식화와 e-비즈니스화가 가속되면서 산업클러스터 역시 발전방향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산업집적과 네트워크 중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규제완화 등으로 대표되는 신공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장기적, 국가적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북유럽의 IT, 미국의 BT 클러스터, 홍콩, 싱가포르, 중국의 경제자유무역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신공간정책은 산업의 지식집약화와 국가지역간 경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시설 중심 산업단지의 한계, 국내 지역간 경쟁구도 형성의 비효율적 집적화를 타계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신공간정책의 등장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지역이 진정한 의미의 산업지구로 발전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차원들은 ‘산업지구의 경쟁력을 규정하는 기반(산업지구의 기반)’과 ‘지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간 상호작용의 촉발요인(주체간 상호작용)’에 있어 대체적으로 일정한 발전방향을 지니고 발전되어 온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산업지구의 기반’은 하나의 산업지구가 지니는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하부구조로 초기의 산업지구 이론들은 주로 단지나 도로 등 물리적인 하부구조를 중요하게 여긴 반면, 최근에는 기업의 경쟁력이 가격요인보다는 인력, 아이디어, 혁신 등에 의존함에 따라 정보와 지식, 그리고 혁신 등 비가시적 기반들이 주된 하부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주체간 상호작용’은 기업간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요인을 말하며, 과거에는 연계비용의 감소, 불확실성에의 대응 등 경제적인 요인을 중시한 반면 최근에는 기업간의 신뢰, 지역사회와의 밀착성, 정부나 대학, 그리고 비정부조직(NGO) 등 경제외적 요인과 기업외적 주체들의 중요성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축을 토대로 ‘산업지구를 규정하는 핵심차원’으로 다섯가지 주요 차원(dimension)을 발견할 수 있는데, i) 현지화(localization), ii) 네트워킹(networking), iii) 착근성과 제도적 기반(embedding & institutional endowment), iv) 집단학습(collective learning), 그리고 v) 혁신 시너지(innovative synergy) 등이다.

(2) 지역산업군집 구조 및 특성 분석방법

가. 지역산업군집 구조분석 방법

기업, 정부, 대학 등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주요 핵심 주체들을 중심으로 클러스터의 구조와 다이내믹스를 분석한다. 현지화, 네트워킹, 착근성/제도집약, 집단학습, 혁신시너지의 개념을 핵심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3개 차원으로 재구성하였다.

① 산업생산체계 : 주로 현지화 및 네트워킹을 포괄

- 지역내 인력 조달 정도, 생산체계의 특화 및 전문화 정도
- 전후방/서비스 연계의 국지화
-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지역 내 분업구조 형성

② 기업지원체계 : 착근성/제도집약

- 정부부문(지방정부, 산하기관)
- 협회, 민간 지원서비스
- 비공식적 모임

③ 기술혁신체계 : 혁신시너지와 집단학습을 포괄

- 창업의 소스 및 창업지원기관
- 기업의 혁신성 및 지역 내 혁신 협력
- 기술협력의 대상과 입지
- 집단학습의 매커니즘(이직율 및 재취업율)과 기업문화

이를 표준화된 클러스터 해부도(Cluster Anatomy Map)를 이용하여 지역산업군집의 구조와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클러스터 해부도의 필수 요소
- 행위주체들의 중요성과 상호관계(agent positioning)
- 클러스터의 가치체인(value chain)
- 공간적 구성관계(spatial configuration)
- 클러스터의 핵심차원(major dimension)
- 역동성(dynamics)

(3) 지역산업군집 특성분석 방법

지역산업군집의 특성 및 발달정도와 관련된 설문 항목을 중심으로 서술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산업생산체계(국지화 및 네트워킹) :

- 지역 내 인력조달정도(안정된 노동시장 측정)
- 가장 중요한 거래 관계의 지역적 집적(고객 근접 입지여부, 핵심기업존재여부)

- 기업간 전후방연계의 공간적 특성
- 기업 입지의 이점을 대리지표로 선정하여 분석
- ② 기업지원체계(착근성/제도적 집약)
 - 제도 및 관련 지원 기관의 역할
 - 기업간 기술인력의 이전(이직, 재취업 및 창업)
 - 창업자의 경력 및 활동지역,
 - 지역의 지식 이전 메카니즘(공식·비공식 모임, 교육훈련 및 학습기회)
 - 지역의 기업문화를 통하여 파악
- ③ 기술혁신체계(집단학습 및 혁신시너지) :
 - 기업의 혁신성 및 혁신의 종류와 수준
 - 혁신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의 유형과 입지
 - 혁신의 원천
 - 전략적 제휴 유무 및 유형
 -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의 기업·기관 및 그 입지 지역을 통한 클러스터 여부 파악

2.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1) 디지털시대의 경제적 특징

세계의 경제는 e-비즈니스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환경적 특징을 갖게 되었다(<표 3-1> 참조). 이에 따라 국가간, 기업간 상호 작용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제품의 가격, 품질, 비용, 시간 등과 같은 전통적인 평가 기준이외에도 지적자산 등이 새로운 경쟁기준으로 도입된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 영역을 지배하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내부로부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요인이라면 그러한 바람의 속도를 가속시키거나 방향을 바꾸어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 글로벌화의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표 3-1> 디지털 시대의 사회 환경 특징

경계가 희미한 시대 : 산업간, 생산/소비자간, 조직간
소비자(사용자) 중심의 시대 : 시장의 변화(공급자중심 → 수요자중심)
느슨한 네트워크의 시대 : 커뮤니티에 의한, 커뮤니티를 위한, 커뮤니티의 경쟁
가상 통합의 시대 : 따로 또 같이
공생+시너지의 시대 : 상보성(相補性, Complementarity)
정보과다로 인한 주의 산만의 시대 : 개인화(Personalization)

수확체증의 시대 : 거대 기업의 등장 가능성 → 벤치기업과의 관계 재설정
 유목민, 떠다니는 직업의 시대 : 다기능 요구,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직업의 시대
 창발적 진화, 공진화의 시대
 새로운 자산들 : (기술, 정보, 문화, 지식 등) + (신뢰, 명성, 이미지 등)
 생력화(省力化) 시대 : 정보화/자동화로 노동인여 존재, 노동의 소멸 vs. 직업의 창출

글로벌화는 디지털 기술과 더불어 이 시대 변화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 글로벌화의 흐름은 기업 외부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기업 내부 영역으로 바람을 몰아오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글로벌화의 흐름, 이들은 서로 상승작용(synergy effect)을 하면서 잔잔한 물결에서 거대한 파도로, 그리고 강력한 후폭풍을 일으키는 핵폭탄으로 변화하여 기업경영 현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영환경의 급변화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기업은 아무도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 곧 IT 기술에 의한 경영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업 생존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결론이다.

이제 기업들은 자사의 핵심역량 이외의 경영활동들을 아웃소싱하거나 리엔지니어링 또는 리스트럭처링, 그것도 아니면 M&A 등의 움직임을 통하여 디지털 기술과 글로벌화 흐름이 만들어내는 회오리바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의 여파 속에서는 전문화된 벤치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도 있다. 또한 제품의 생산패턴 및 기술구조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간 제휴활동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R&D 활동 등이 확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정 또는 그 원천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증가함으로써 생산기술, 상품의 종류, 직업 및 여가 등 경제 전 부문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생산, 재고, 광고, 판매, 마케팅, 가격전략 등 제반 경영활동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의 절반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기술에서 비롯된다. 디지털 기술은 무한한 디지털 자원의 이동통로인 네트워크와 효과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가 이른바 네트워크 사회로 지칭되기도 하는 이유는 인터넷과 같은 강력한 통신망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증폭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킹에 의한 이점은 자원의 공유이며, 결국 희소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본질을 두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생산방식 변화의 결과이며, 공급부문의 혁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간 경제협력은 국경을 떠나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있으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 생산, 투자 외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2) 경영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 변화는 어떠한 사건이나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선입관이나 편견을 버리고 시각을 교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글로벌화 및 정보화의 여파로 패러다임 변화는 전 부문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변화의 사이클도 크게 단축되고 있어서 기업대응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적 측면과 글로벌 부문에서도 이와 같은 패러다임 변화는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다.

<표 3-2>와 <표 3-3>에서 정리된 것은 경제, 경영 및 산업 측면 등 제 부문의 패러다임 변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 것들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러한 진데 기업 전략의 포커스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변화의 당위성을 읽을 수 있다.

<표 3-2> 경제 패러다임 변화 요약

구 분	과거 패러다임	미래 패러다임
세 계 경 제	부분개방지향/고성장/산업경제체제	완전개방지향/안정성장/디지털경제체제
글로벌 요소 기술	운송·통신 등 기술발전 미흡	운송·통신(인터넷) 등 기술발전 급변
시 장	시공간적 제약 많음	시공간 제약 없음(anytime, anywhere)
상 품	제조상품 중심/특정상품 편중	제조상품+서비스상품/전 품목 상품화
시 장 중 심	공급자(판매자) 중심	수요자(소비자) 중심
수 출 시 장	특정국, 특정시장 편중	수출국의 다원화
거 래 방 식	기존 무역방식(오프라인 중심)	전자무역 방식(온라인+오프라인)
상 거 래 주 체	상인 중심	모든 경제주체
글로벌 소비자	물질 니즈(양적 욕구) 충족 지향	비물질 니즈(문화 등 질적 욕구) 충족 지향
기업 전략	부문전략 추진	복합전략 필요

자료 : 김미정, e-비즈니스 문화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p.18, 2003.

21세기 패러다임의 중심은 글로벌 패러다임에서 출발하며,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충격 없이 항상 새롭게 변모하는 글로벌 패러다임들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기업 이익으로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대외지향의 개방형 경제를 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기업경쟁력 저하로 인하여 생존 자체가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미래의 새로운 변화를 단순히 예측하는 것에서 만족하여도 아니 된다. 더욱 냉엄해지는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관건이다.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능력은 그 자체가 기업경쟁력이 될뿐더러 기업 생존을 보장해주는 숨은 자산이 된다.

〈표 3-3〉 경영 패러다임 변화 요약

부문	과거 패러다임	미래 패러다임
경 영 환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자 중심 - 보수적 중심, 변화에 무감각, 과거지향적 - 고비용 저효율 경영구조 - 피동적 마케팅 - 제품의 시장생산, 양적 확대 (외형적 성장) 지상주의 - 노동과 자본이 힘의 원천 - 국지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 - 혁신추구, 전략적, 유연성, 미래지향적 - 저비용 고효율 경영구조 창조(고부가가치 경영구조) - 공격적 마케팅 - 신경영기법 개발, 적극적 시장개척(시장창조), 혁신적 상품→ 맞춤형 제품, 질적 수준 제고 - 지식, 정보, 문화 등이 힘의 원천 - 글로벌 사고
경 영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주의자, 보수주의자 - 배타적, 연공서열식, 정년보장 고용시스템 (평생직장) - 장기목표에 과잉 집착 - 이론중심 경영자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하는 사람, 혁신자(innovator) - 성과급주의, 정년유동적 고용시스템 (평생직업) -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짧은 라이프사이클에 부응 - 실무중심 경영자 우대, 현장경험 중시
경 영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층적 피라미드, 권한 집중 - 기능적 / 사업부제 - 연공서열제, 감점주의 - 큰 본부, 거대기업, 규모의 경제 - 경직적 계획/예산, 실적 통제 - 안정적/관리적 기업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적 분업 네트워크, 권한 분산 - 프로젝트형 / 오케스트라형 - 능력주의, 가산점주의 - 작은 본부, 분산형 기업단위(Network) - 전략적 계획/예산 및 통제 - 모험적/전략적 기업경영
인 적 자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질적 인재 - 집단주의, 충성강요 - 고학력자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질적 인재(개성 중시) - 개인주의 허용, 유능한 자가 대우받음 - 전문직 우대

자료 : Ibid.,p.19.

모든 개인이나 조직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한 비전 내지는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됨으로써 커다란 변혁의 파고를 몰고 온다. 이러한 변화는 눈덩이 효과에 의해 더욱 가속화 되는데, 이 때문에 인식의 전환(paradigm shift)이나 글로벌 스탠더드의 이해 없이는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기 어렵게 된다. 21세기 경영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의 파고’가 한층 더 높아지며, 모든 조직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에 생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는 경쟁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를 뿐더러 무엇으로, 왜,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지 그 자체를 파악하기 힘든 ‘불확실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무한경쟁 상태이지만 경쟁 상대방과 치열한 경쟁 중에도 협력해야 하는 이른바 ‘경쟁과 협력’(coopitition)의 시대가 하나의 특징이 되고 있다.

둘째, 항상 제3의 창조를 예고하고 있고, 모든 사물의 라이프사이클이 급격히 단축됨으로써 변화 자체의 사이클이 더욱 단축되고 있다. 이로써 경영변화에의 대응은 더욱 곤란해지고 있다.

셋째, “글로벌화+정보화”에 의한 상승효과에 의하여 변화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며, 이러한 현상의 반

작용 내지 상호작용으로 지역화가 심화되는 현상도 가속화된다.

넷째, 장벽 파괴(borderless)의 현상이 가속화된다. 비단 국가간의 장벽인 국경파괴만이 아니라 직업의 수직적·수평적 영역 모두 파괴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대처하기 곤란하게 만든다.

다섯째, 속도와 세계적 표준, 즉 글로벌 스탠더드를 요구하며, 가치관 등 많은 부분에서 혼돈을 야기한다.

여섯째, 디지털 기술 변화에 의하여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영활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특징들을 감안할 때 전방위 무한경쟁으로 인하여 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곧 기업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이다. 산업 측면이나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 변화는 어느 일 부문으로 특정지어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수용·선도하는 기업만이 곧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III. 중국경제 및 서부대개발 현황

1. 중국 경제정책의 기초변화

1) 중국의 최근 경제동향

중국은 2005년이 과거가 되면서 “10차 5개년 계획”이 완성되는 해이자 “1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새로운 2006년을 맞이하게 된다. 중국은 그동안 취득한 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함께 미래의 발전에 더욱 집중력을 쏟게 될 것이다. 인구 13억으로서의 중국은 안정과 변명으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공헌했다 할 수 있다.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은 러시아, 인도 등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5개년 계획은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목표와 규범이 있게 하였으며, 안정적인 사회 국면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제10차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면서 중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은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발전도상 국가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중국의 발전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소득 향상과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와 유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다.

행동이 말보다 앞서서 중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의 성공경험은 날이 갈수록 세계에서 보다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11차 5개년 계획’에 명칭의 변화이다. 제10차까지는 ‘계획’이었으나 제11차부

터는 ‘기획’으로 바뀌었다. 이는 중국의 발전에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계획경제시절, 중국은 계획을 통해 주요자원을 분배했기 때문에 각 항목의 지표가 매우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시장에서 자원을 분배하는 오늘날에는 기획의 중요 기능이 거시전략으로 변화했고, 기획 지표가 적을수록 좋으며, 전체적으로는 예측적·지도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계획에서 기획으로 변화하면서 미시적·직접적이고 항목관리 위주의 특징에서, 거시적, 간접적이며 기획관리 위주의 특징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제11차 5개년 기획은 중국 31개성과 자치구 및 직할시 그리고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해외에 나가있는 중국유학생 등 421만명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이 29.7세이고, 전문대 이상 학력자가 67.6%라고 했다⁶⁾. 따라서 제11차 기획은 신중국 경제발전 역사상 미래의 발전계획에 대해 공모의 형태로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조화로운 사회건설이 목표라고 한다면 과학적 발전은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 자본, 자연자원과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이전의 양적 성장에서 노동자의 자질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존하는 효율성 향상을 통한 발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양적인 쾌속성장과 더불어 질적과 전략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도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빠른 산업화는 아시아경제를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만들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1인당 국민소득도 50%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구매력 있는 중산층이 빠르게 확산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거대한 소비시장으로의 도약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2005년에도 중국경제는 정부의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수출의 호조로 9%⁷⁾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한 중국 경제는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비를 증가하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6년은 후진타오 지도부의 신정책이 본격 구현되는 11차 5개년 기획의 원년으로, 향후 중국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2006년 이후 중국경제의 5가지 주요 이슈⁸⁾는 투자 증가세 둔화 여부, 고유가 충격, 중미 통상마찰 진전 상황, 경제 블록화, 11차 5개년 계획 등이며, 이를 통해 중국경제의 연착륙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향후 중국경제정책은 투자와 수출 일변도의 성장엔진이 소비와 내수로 다원화되고, 연해와 도시 위주였던 성장의 축이 내륙과 농촌으로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급격한 경기위축을 우려하는 중국 정부도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다소 성장률은 저하되지만 연착륙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중국은 소비와 내수로 다원화하고, 성장의 축을 내륙과 농촌으로 다변화할 경우 물류의 원활화를 위한 물류망 구축과 산업의 활성화 부분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6) 杜风, 中国是一五规划备爱期待, 金桥, 2005.12., p.13

7) 정상은, 중국경제 연착륙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5.10.12., p.1

8) Ibid., p.1.

서 중국은 물류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ICT를 이용한 신공간혁신클러스터 활성화 계획을 세워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산업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면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002년 이후 중국은 중부, 서부 등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가 연해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내몽고(60.9%), 길림성(43.8%), 허난성(45.3%)⁹⁾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소득, 인프라 낙후 등으로 소비기반이 취약한 내륙 및 농촌에 있어서 인프라, 산업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내수 진작으로 직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중국의 변화를 고려하여 대중 경제협력에 있어서 어떤 산업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투자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의 투자 열풍에 기반한 국내기업의 연해 중심의 진출 전략은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또한 철저한 투자 계획에 의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집중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국경제의 주요 이슈에 대한 파악과 중국경제의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즉, 중국경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국의 내수시장 부상에 대비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에 역량을 집중하고 차별화에 주력하여야 한다. 둘째, 소비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은 물론 품질수준까지 높아진 중국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위주로 진출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그러므로 중국과의 발전적인 신공간혁신클러스터를 통하여 함께 투자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공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중국의 경제블록화 추진

중국은 통상정책의 초점을 WTO 가입에 맞추어 왔다. 이에 따라 WTO 가입 이후 FTA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2002년 아세안과 FTA 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을 서명으로 마카오, 칠레,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과 협상 중에 있거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인 FTA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중국은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활성화를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대미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며,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협으로 여기는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내 중추국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 고도성장에 따른 필수요건인 자원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의 각 지역의 세계 주요 지역의 핵심국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함으로써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대응하는 동맹군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동아시아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한국과 대만은 이미 중국이 최대

9) Ibid.,p.18.

의 수출시장이 되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대일적자-대중흑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 이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형성을 통해 동아시아 중심국가로의 부상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우려와 개입에 대해 중국은 당분간 미국과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에서 통합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3) 중국의 서부대개발 진행사항

중국의 지역구분은 동부·중부·서부로 분류된다. 서부대개발의 대상인 서부지역은 12개성, 자치구, 직할시로 구성된다. 꾸이저우(貴州), 산시(陝西), 간수(甘肅), 칭하이(青海), 쓰촨안(西川), 윈난성(雲南省), 닝시아후이주(寧夏回族),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네이멍구(內蒙古), 광시장주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시장티베트자치구(西藏自治區), 충칭직할시(重慶直轄市) 등이다.

서부지역 12개성, 자치구, 직할시의 총면적은 685km²로 중국전체 면적의 71.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말 기준으로 인구는 3억 6,700명으로 전국 인구의 28.8%를 점유하고 있다. 2003년 국내생산총액은 2조 2,660억위안으로 전국 점유율의 16.8%이다.¹⁰⁾ 서부지구는 자원이 풍부, 시장잠재력이 크며, 전략적으로 요충지이다. 다만, 자연, 역사, 사회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서부지구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은 전국평균의 2/3이며, 동부지역 평균의 40%에 미치지 못한다.

서부대개발은 중국의 국운이 걸린 중요한 사업으로 21세기 중국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다. 서부대개발의 성공여부는 13억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지금과 같이 심각한 지역간 경제격차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은 내부적으로 극히 취약한 이름뿐인 강대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나 서부대개발사업은 미국의 서부개척이나,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발에 필적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어려운 사업이다. 중국정부가 서부지역 발전전략을 ‘대개발’이라고 칭하고 미국의 서부개척과 자주 비교하는 것은 서부대개발의 성공이 쉽지 않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성공할 경우 그 정치·경제적 효과가 매우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5년은 중국이 서부개발을 개시한지 6년째 되었다. 서부대개발은 6년을 경과하면서 서부지역의 경제와 사회는 안정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현재 15곳의 서부 도시들이 2005년 중국도시 경쟁력 보고서에서 100대 도시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서부 공업발전이 계속 고성장하고 있으며, 고정자산투자 누계도 1만 475억위안으로서 2004년 동기대비 29.5%증가하였고, 지방재정수입 추계도 1,72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3%증가하였다.¹¹⁾ 지금까지의 서부대개발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西氣東輸, 西電東送 등 총 8,500억위안 규모의 60개 중점 프로젝트 추진

중국 정부는 지난 5년간 서부대개발 관련 총 8,500억위안 규모의 60여개 신규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

10) 高巍·揚英珍, 西部大開發中政策驅動的的重要性, 100029.

11) http://www.nanet.go.kr/lawinfo/lswinfo_bbs/k03-forenewsinfo02_read.html?nav=030300

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23개 프로젝트들이 금년 말까지 전면 또는 부분 완료되어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장 타리무(塔里木) 천연가스를 10개의 성(省), 자치구, 직할시를 통과시켜 상하이까지 공급하는 전체 길이 약 4,000km의 西氣東輸 프로젝트가 금년 10월 완전 개통된 것을 비롯해 西電東送(황하, 양쯔강, 산샤댐 등 대형 수력,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남·중·북 3개 전송망으로 나누어 화남, 화동, 화서지역으로 수송하는 프로젝트)중 廣東 송전 1,000만kW 증설 프로젝트가 앞당겨 완공되었다. 또한 靑藏鐵路(총 연장 1,925km의 칭하이-티벳간 철도건설) 프로젝트도 약 9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退耕還林(황폐한 농경지를 산림으로 조성)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2억 8,800만畝에 해당하는 황폐 농경지와 산을 숲으로 조성한다. 이밖에 고속도로 및 주요간선 국도 건설, 천연삼림보호, 황사근원지 처리, 서부중심도시 공기오염처리 등 중점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② 서부대개발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10% 유지로 생활수준 지속 향상

중앙정부 차원의 서부대개발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및 중국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약 20%에 달하는 투자 등에 힘입어 지난 5년간 서부지역 12개 省市의 경제성장률이 10%를 상회하게 되어 중국 평균 성장속도의 상대적 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약 4,600억위안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약 5,000억 위안에 달하는 간접적 재정지원 및 전문 프로젝트 보조금, 장기 건설국채 1/3 이상의 서부지역 사용 등으로 서부지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생활수준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

③ 농촌지역 SOC 및 사회사업 분야에 현저한 발전

현(縣)급 빈곤지역에 1.7만km의 인입 도로 및 4.6만km의 국도, 2.6만km의 송유관 건설 등 지난 5년간 서부 농촌지역의 교통, 水利, 에너지 등 SOC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농가 생산 및 생활에 많은 개선을 가져왔다. 또한 서부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170억위안의 자금을 투입, 특히 농촌 의무교육 시행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 농촌 공공위생시설 분야에도 약 80억위안을 투자하여 환경개선에 노력하였다. 또한 공중과 시정지역 확대, 현(縣)급 문화관·도서관 및 향진(鄉鎮) 문화원 등을 건설하여 농촌 빈곤지역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④ 산업구조조정 및 시장개방 효과

시장경제 및 국가적 차원의 산업 구조조정에 힘입어 서부지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전력, 석탄, 석유·천연가스, 유색금속, 면화, 목축, 여행업, 일부 장비제조업, 첨단산업 등 분야가 눈에 띄게 발전해 전국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서부지역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100억달러에 달했으며, 여기에 국제기구 및 외국차관 등을 합해 실제외자 유치액은 150억달러에 달했다. 한편 1만여개 동부 연해지역 기업들이 서부에 투자해 東西 협력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서부대개발의 발전은 중국전체에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시(陝西), 간수(甘肅), 칭하이(靑海), 닝샤(寧夏), 꾸이쥬우(貴州), 충칭(重慶), 쓰촨(四川), 윈난(雲南), 시짱(西藏), 신장(新疆), 내이멍구(內蒙古), 광시(廣西) 등 12 서부 省市가 중국 東中部 지역에 에너지, 광물, 농산물 등을 대량 공급하여 東中部의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서부대개발 중점 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각종 설비, 자재, 기술 및 인력을 전국 각지에서 구해 오면서 시

장 활성화와 전체적인 국가 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서부대개발의 성공여부를 예측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중국정부가 서부대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50년간 지속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투자자본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외국자본을 서부지역의 장기프로젝트에 유입하고 있는 것은 해외요인에 의한 리스크의 확산을 방어하는 방패역할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초창기 10여년의 성과가 전체계획의 성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인프라 건설, 자원개발, 공업단지 건설 등 핵심 사업들을 1, 2단계(2000 ~ 2015)에 집중 배치하였으며, 3단계(2016 ~ 2050년)의 목표인 도시화 국제화 등은 1, 2단계가 성공할 경우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대개발은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 중국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서부지역의 장은 발전 가능성이 큰 미개척시장이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해지역개발에 후발자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 온 한국기업들에게 서부는 시장 선점을 구미나 일본기업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서부지역 전체의 소득수준은 비록 낮지만 청두¹²⁾, 충칭¹³⁾, 시안 등 대도시는 1억명 이상의 구매력을 갖춘 거대한 잠재적 시장이다.

서부지역 투자 진출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각종 인프라건설, 자원개발, 환경산업 등은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이다.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 광물자원 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서부대개발정책은 50년이라는 장기간의 계획이므로 이곳에 진출하는 기업역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부지역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작업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부지역은 독특하고 다양한 종교, 관습 및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다 상당기간 외부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마케팅, 영업은 물론 대인관계까지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요구되며, 한국에서의 사양산업이나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한 이전은 성공가능성이 낮다. 서부지역의 경제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중국경제의 고도화로 신규투자의 출발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중국정부의 우대조치도 관광산업, 에너지, 첨단 산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경제적 중요성과 기업들의 높은 투자리스크를 감안하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서부대개발 참여를 통해 대륙교류권을 구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에도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12) 인구 1,100만, 2002년 일인당 GDP는 중국 평균의 2배 이상인 1,984달러 수준임.

13) 중국의 3대 자동차 생산기지로써 연간 승용차 판매량이 7만대를 상회함.

IV. 신공간 전략 방향 및 한국의 참여 전략

1. 문화를 선점한 신공간 전략 방향

본 고의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군집은 이제 산업의 지식화와 e-비즈니스화가 가속되면서 산업집적과 네트워크 중심,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규제완화 등으로 대표되는 신공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장기적, 국가적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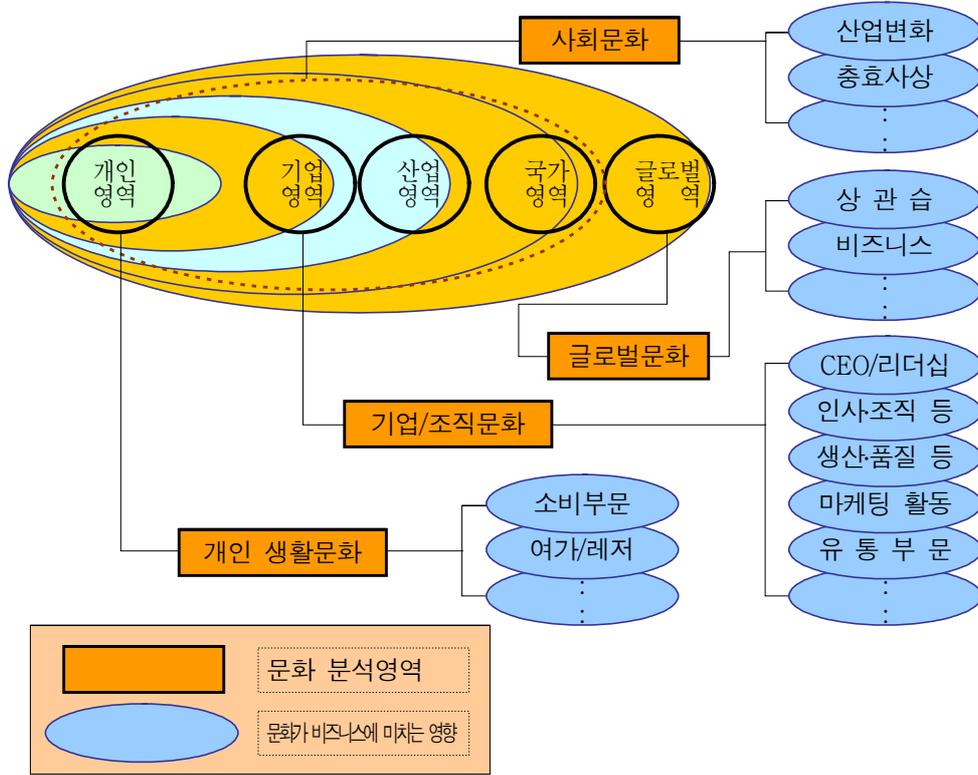
따라서 중국의 서부대개발에 있어서 한국은 새로운 산업군집의 신공간혁신클러스터 정책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경의 개념을 넘어서 한중 양국이 전략적인 혁신적 산업군집의 신공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하부구조의 초기로서 산업단지나 도로 등 물리적인 하부구조 외에도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인력, 아이디어, 혁신 등에 의존함에 따라 정보의 지식, 그리고 비가시적 기반들이 주된 하부구조로 인식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간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주체간 상호작용은 과거의 연계비용의 감소, 불확실성의 대응 등 경제적인 요인을 중시한 반면 최근에는 기업간의 신뢰, 지역사회와의 밀착성, 정부나 대학, 그리고 NGO 등 경제외적 요인과 기업외적 주체성들의 중요성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축을 토대로 산업지구를 규정하는 핵심차원으로 다섯가지 주요차원 현지화, 네트워킹, 착근성과 제도적 기반, 집단학습, 그리고 혁신에너지 등은 바로 e-비즈니스의 환경하에서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혁신산업클러스터의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혁신적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산업생산 체계, 기업지원체계, 기술혁신체계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e-비즈니스화에 대한 양국의 사회, 문화적 접근이 우선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화적인 요소가 신공간 정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화적 요인은 사회, 경제의 모든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며, 현재 한국은 문화적인 우위와 디지털 산업에 있어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인 요인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그림 4-1] 참조).

특히 중국의 서부지역은 독특하고 다양한 종교, 관습 및 문화를 가지고 있고 상당기간 외부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마케팅, 영업은 물론 대인관계까지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요구되며, 글로벌스탠더드에 대한 비즈니스 문화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신뢰성에 대한 문화적 요인이 약하므로 전반적인 문화 분석과 조직문화 및 글로벌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서부대개발의 개발 전략에 있어서는 문화적 인지 및 이에 대한 선점이 우선시 되어야 성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1] 비즈니스를 위한 문화 분석 영역



2. 신공간혁신클러스터 개발 전략

한국과 중국의 ICT를 이용한 신공간지구 개발을 위해서 우선 중국의 경제 현황과 주요 이슈, 서부대 개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은 중국에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으면서 동아시아의 역사를 함께한 대표적 국가이다. 현재 무역량, 투자액, 인적교류 등 제반 경제관계에 있어서 양국의 상호의존도는 매우 심화되어 중국은 국가적 특성으로 볼 때 디지털 기술이 견인하는 미래 발전의 기반을 IT발전을 개괄해 봄으로써 그 실마리를 찾아 구상하는 편이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광활한 대륙, 수많은 민족,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국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통일화된 국가 면모를 유지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이버 공간은 광대한 물리적 공간을 가진 중국대륙과 수많은 민족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유지 내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의 편의성과 문화발전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관심은 사양산업이나 소규모투자를 통한 인건비 절약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

러나 최근 중국은 이미 변화되었으며 경제의 질적 성장 및 상요강 사회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재개발에 있어서도 외국 인재의 고용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미 신공간혁신클러스터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공간 정책산업은 지식집약화와 국가간 경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등장하고 있으며, 첨단 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조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신공간산업지구를 규정하는 핵심차원은 ICT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다. 이는 ICT를 이용한 산업의 집적은 자원의 효율성과 기술학습에 시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군집의 원리에 의한 효율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전달의 비용은 거리에 따라 다르다. 특히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은 거리의 차에 의하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나 또는 접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혁신활동을 위한 지식생산 기능에 근거하여 볼 때,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지리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리적 문제는 위치 선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능이 뛰어난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 또는 R&D 연구소의 주요기관에서 고도의 전문화된 노동자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기술과 공정 새로운 제품과 사업하는 방식에서 충분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 클러스터들은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었다. 첫째, 문화와 IT를 응용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며, 둘째, 전문화된 기술자 고용이 가능하게 집적되어 있으며, 셋째, 수도권과 주들의 중심으로 관심이 있는 지역의 특권, 넷째, 벤처자본의 유입, 다섯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단계 기획 등이다.

실리콘 벨리의 네트워크는 지역을 구별하는 숙련된 노동력, 공급, 정보의 단순한 집적화로 된 것이 아니다. 지역 연구소는 기술적, 재정적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지역의 기업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스탠포드 대학, 무역협회, 지역비즈니스 조직, 특화된 다양한 컨설팅, 시장조사, 벤처자본 회사, 공공관련 회사 등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들은 포럼, 기술적 시장 정보의 유지형성, 교환, 사업계약 확립 등의 일반 정보와 암묵적 정보의 활발한 교환에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것이다.

이것은 국가를 초월해 규모의 차이가 있더라도 고도의 문화와 ICT 기술산업의 혁신적인 클러스터에서 위대한 힘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역과 생산은 혁신에 비하여 성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혁신은 현재 세계화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며, 이 혁신은 암묵적인 과정이며, 이는 집중화되어 있는 클러스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신공간 산업지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체들이 이 클러스터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는 외곽지역의 생산자는 중심지역의 생산자보다 경쟁적 열위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21세기의 신공간혁신클러스터는 지구 중심적 클러스터이어야 한다.

따라서 외곽지역의 생산자는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심지역의 생산자와 제품을 차별화시키고 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새로운 공간을 요

한다. 외곽 또는 틈새지역에서의 기업은 제품기술면에서 혁신적인 활동을 해야 하며, 이들이 또 중심에 서게 될 것이며 결국 클러스터는 확산될 것이고, 이들은 또 다른 현지화를 만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예에서 보듯이 경험적·의도적인 산업군집의 원리를 이용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경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물질적인 인프라만이 아닌 정보와 지식, 혁신 등 비가시적 기반의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총체적 기획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단계로서 중국의 서부대개발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참여이다.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사회간접시설의 산업과 제조산업에 대한 참여이며, 2단계로서는 ICT를 기반으로 한 산업분야에의 참여이다. 2006년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은 투자와 수출일변도의 성장엔진에서 소비와 내수로 다원화되고, 성장의 축이 내륙과 농촌으로 다원화되며, 특히 서부대개발의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의 완료와 함께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 광대역전송 네트워크, 서브마크롱 집적회로, 나노기술 등의 과학기술 용어와 관광산업 등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신공간혁신클러스터 전략을 제시해 본다.

신공간정책은 산업의 지식화가 급진전되면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중국의 서부대개발에 있어서도 우선 한국과 중국정부간의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기획이 먼저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공간정책의 성공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성장을 견지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으며, 현재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러시아와 인도에도 모범적인 발전 모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서부대개발의 신공간정책은 산업집적을 위한 사회간접시설과 ICT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부대개발에 투자에 있어서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총체적 기획을 전제로 하여 체계적인 투자와 지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있어서는 한국의 비교경쟁우위의 산업을 기반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넓은 서부지역에 대한 신공간 혁신군집의 형태로서 투자를 받은 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제도시의 군집화된 산업화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2단계로서는 산업생산체계에 대한 사전 조사로서 그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통한 현지화 및 네트워크를 포괄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정부의 총체적 기획 하에서 일정지구를 결정하여 어떠한 신공간산업군집을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적합한 주력사업을 선정하여 Bottom-up 절차를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산업생산체계에 대한 조사로서 지역내 인력조달정도, 생산체계의 특화 및 전문화 정도, 전후방 서비스 연계의 국지화,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지역 내 분업구조 형성의 가능성 등이다.

제3단계로서는 기업지원체계로서 착근성과 제도의 집약에 대한 과제이다. 한중 양국 정부의 협력과 지원, 기관, 협회, 민간의 지원서비스 및 비공식적 모임을 들 수 있다. 즉, 제도 및 관련지원 기관의 역할, 기업간 기술인력의 이전, 인재구성 및 활동지역 등이다. 또한 지식 이전 메카니즘으로서 교육훈련 및 학습기회 등과, 지역의 기업문화의 건전한 육성 등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상호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제4단계로서 기술혁신체계이다. 집단 학습 및 혁신시너지 효과를 들 수 있다. 기업의 혁신성 및 혁신의 종류와 수준, 혁신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의 유형과 입지, 혁신의 원천, 전략적 제휴 유무 및 유형,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의 기업, 기관 및 그 입지 지역을 통한 클러스터 여부의 파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인 접근은 중국경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를 하여야 한다.

V. 결 론

현재는 세계 경영환경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성장의 발전은 각 나라에 국가의 이익과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새로운 e-비즈니스를 통한 경제지도와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경제성장의 외형적인 발전 동력에서 이제는 소비와 내수, 국내의 경제저성장 지역에 대한 내륙의 개발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며 중국경제의 발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유도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중국서부대개발은 한국에게도 중요한 기회와 위협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ICT는 물론, 물적, 인적자원 서비스 등에 있어서 세계의 허브국가로 다시 태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중국의 서부대개발 참여는 아시아에 있어서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서부대개발에서의 신공간혁신클러스터에 성공은 아시아와 동유럽으로의 진출에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기업에서는 글로벌화 시대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하여 신공간혁신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총체적인 기획과 장기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에 크나큰 전환기를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중국의 경제이슈와 서부대개발 투자전략에 대한 기초조사와 문화적인 접근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전 세계와의 산업집적과 네트워크중심,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새로운 비즈니스 문화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도 서부대개발에 있어서 이미 외국의 자본투자유치와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고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서부지역으로의 우수 대학유치, 연구원 유치, IT, NT 등의 첨단산업화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비교경쟁력 있는 산업의 진출이 우선시 되어야하며, 산업지구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지식집약화 산업으로의 진출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지역간 경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시설 중심 산업단지의 한계, 인력자원활용의 한계, 국토문제와 지리적인 한계

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준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지역에 대한 특성과 신공간혁신클러스터에 필요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장기적인 협력과 지식산업으로 갈 수 있는 단계별 전략을 갖추고 양국의 경쟁력있는 분야를 조율하면서 미래의 비즈니스환경에 대비하는 것이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신공간혁신클러스터의 단계별 성공은 양국간 우호증진의 기회와 글로벌 경쟁에서의 동반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인도나 러시아 등의 경제개발 정책에도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에 대한 투자는 이제 첫째, 중국의 내수시장 부상에 대비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차별화에 주력하여야 한다. 둘째, 소비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은 물론 품질수준까지 높아진 중국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국제화 되어가고 있는 도시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신공간혁신클러스터에서 성공을 하여야만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양국의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공존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공영일, 「중국의 IT시장환경과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04. 7.
- 김미정, 「e-비즈니스 문화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3.
- 정상은, 「중국경제 연착륙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5. 10.12
- 정보통신부, 「2004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2004. 7.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분석」, 2004. 6. 22.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한국의 대중국투자를 중심으로), 2004. 1.
- Asheim and Cooke(1999)의 편저인 *Regional Innovation Systems*, Malecki and Oinas(1999)의 편저인 *Making Connections : Technological learning and regional economic change*, and *Regional Studies*의 1999. 6. 특집호 참고
- Legendijk, A., "From new industrial spaces to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d beyond : how and from whom should industrial geography learn?", EUNIT Discussion Paper 10, Newcastle upon Tyne : CURDS,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1997.
- 高巍, 扬英珍, 西部大开发中政策驱动的重要性, 100029.
- 杜风, 中国是一五规划备受期待, p.13, 金桥, 2005.12.
- [http : //www.nanet.go.kr/lawinfo/lswinfo_bbs/k03-forenewsinfo02_read.html?nav=030300](http://www.nanet.go.kr/lawinfo/lswinfo_bbs/k03-forenewsinfo02_read.html?nav=030300)
- [http : //www.chinabroadcast.cn/1/2005/06/23](http://www.chinabroadcast.cn/1/2005/06/23)